이스라엘, 가자지구 대규모 공습

민간인 등 170여명 사상…예비군 4만명 동원·지상군 투입 '임박'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예루살렘·북부 하이파 로켓포 공격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등을 로켓포로 공격하면서 양측이 확전을 거듭하고 있다.

예비군 4만명을 동원하며 지상군 투입 채비에 나선 이스라엘에 맞서 하마스 역시 로켓 발사 범위를 이스라엘 북부까지 확대하는 등 150여명의 사망자를 낸 2012년 11월의 '8일 교전' 이래 최악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 대규모 공습…하마스, 예루살렘에 로켓 반격

이스라엘군이 8일(현지시간)부터 9일 새벽까지 가자지구 150여곳을 공습, 28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치는 등 팔레스타인 측 사상자가 잇따랐다고 AP와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 중 어린이 5명을 포함해 12명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가자지구에는 밤낮없이 폭발음이 들리고 건물이 흔들렸다. 접경지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의 침공을 피해 가자지구 안쪽의 친척집 등지로 대피하고 있다.

하마스는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중심도시를 처음 로켓으로 공격하는 한편 북부 도시 하이파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다.

하마스 산하 에제딘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처음으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M75 로켓 4발씩, 북부지역 하이파에 R160 로켓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수도 예루살렘에는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폭발 굉음이 연달아 들렸다. 경제수도 텔아비브를 겨냥한 로켓포 2발은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에 격추됐으나 주민들이 서둘러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스라엘은 로켓 한 발이 가자지구에서 140㎞ 떨어진 북부 하이파가 아니라 100㎞ 떨어진 하데라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하마스 로켓 공격 중 최장거리다.

로켓포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채비…전면전 우려

이스라엘은 4만 명 규모의 예비군에 동원령을 내리는 한편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 2개 여단을 배치하며 지상군 투입 채비에 나섰다.

이츠하크 아하로노비츠 이스라엘 치안장관은 "(공격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지상 작전이 필요하면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셰 야알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남부 지역에 특별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모든 것을 동원한 작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지상 침투에 대비해 점차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지상 침투는 아마도 수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이 2012년 말의 휴전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은 안정을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 양측이 공격수위를 높이다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美·아랍 의견 갈려…"국제사회 개입" 목소리도

미국은 8일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 지원에 나섰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계속 로켓 공격을 하며 고의로 민간인을 겨냥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하마스와 통합정부를 구성한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로켓 공격 중단과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로켓 공격을 비난하면서 양쪽에 민간인 살상과 지역 불안정을 불러오는 행위를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랍권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터키 역시 외무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즉각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중미 전략경제대화 개막 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미 전략경제대화(S&ED)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 국가주석(오른쪽)이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오른쪽 두번째) 및 잭 루 재무장관(왼쪽 두번째)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 국가주석, 경제 전문가 좌담회 참석

"지속적인 발전이 국가가 흥하는 제1임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속적인 발전이 당의 집정과 국가를 흥하게 하는 제1임무"라고 말했다.

9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경제형세 전문가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우리가 확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계속해서 경제건설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이어 "발전은 반드시 경제법칙을 존중하는 과학적 발전, 자연법칙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개혁·개방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 발전의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류스진(劉世錦)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 등이 참석해 국제경제, 구조조정, 금융, 대외개방 등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이번 좌담회는 시 주석이 주재한 첫 경제 전문가 자문회의 성격이어서 그가 경제 정책 결정의 핵심 조직인 중앙재경영도소조 조장을 맡은데 이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시 주석도 회의에서 "당은 중국 특색의 신형 싱크탱크를 만들고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좌담회가 바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日 국회의원 6명 오늘 방북

개성공단·스포츠 시설 시찰

'상업화 논란' 中 소림사, 모바일 게임 제작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유신회 소속 참의원 등 일본 국회의원 6명이 북한 방문을 위해 9일 일본을 출국했다.

이노키 의원 등은 베이징을 경유해 10일 오후 평양에 도착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방북은 북한 스포츠 시설 시찰 등이 목적으로, 개성공업단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 노동당 간부도 만날 계획이며 14일 밤 귀국한다. 방북에는 일본유신회 소속 중·참의원 4명과 다함께당 참의원 의원 1명도 동행했다. 이노키 의원 등의 방북은 애초 4월 말 추진됐다가 국회의 허가를 받지 못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 후로 늦춰졌다. /연합뉴스

무술 쿵후의 발원지로 유명한 중국 소림사(少林寺)가 모바일 게임 산업에 진출한다.

소림사는 소림무술을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라고 대만 연합보가 9일 전했다.

이 게임은 쿵후의 핵심 권법과 검법, 봉술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전 세계에 쿵후를 전파하겠다는 취지다.

소림사 측은 최근 모바일 게임 사업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허난(河南)성 덩펑(登封)시 쑹산(嵩山)에 있는 소림사는 496년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가 세운 유서 깊은 사찰로 속세와는 거리를 둔 불교 성지로 인식됐다.

그러나 경영학 석사 출신인 스용신(釋永信)이 1999년 방장을 맡은 뒤 쿵후 쇼와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수익 사업을 확장해 불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소림사는 자회사를 통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寶)에서 기념품을 판매하고 온라인 영화제작 사업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사찰은 9개의 자회사와 산하 기관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 자전거 30분 타는 50代…전립선암 위험 2배 높아진다

50세 이후에 자전거를 매주 9시간 이상 타면 전립선암 위험이 최고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마크 해머 박사가 '건강 자전거 타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5200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일 30분 정도 자전거를 타는 50세 이상 남성도 전립선암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등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s)들을 감안했지만 이러한 연관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혼란변수'란 질병과 특정 원인 사이의 연관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말한다.

이 결과는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면서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머 박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자전거 타기가 남성불임이나 발기부전과는 연관이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자전거 타기는 이미 고환암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남성 건강 저널'(Journal of Men's Health)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